

THE KOREAN NEW YORK DAILY

Monday, November 14, 2011



코리안아트소사이어티, 미니애폴리스 박물관 관람

코리안아트소사이어티(대표 로버트 텔리) 회원 12명은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내 한국 유물들을 전시한 박물관 세 곳을 관람했다. 첫 날 방문한 미니애폴리스 예술인스티튜트에서는 신라와 가야 시대 유물들을 둘러봤다. 둘째날 방문한 와이즈맨아트뮤지엄은 한국을 제외한 타국 뮤지엄 중에는 가장 큰 규모의 한국 고가구를 소장한 곳으로 전통 가구부터 그림, 도자기 등을 전시하고 있다.

〈사진제공=코리안아트소사이어티〉